社 說

정신영역의 다원화로 극복하자

—대학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며 동시에 문화창출의 역동적 본산지다. 각고어린 연구의 축적은 학문으로 축적되며 그 결집은 문화영역으로 확산되어 꽃을 피운다.

대학의 각과의 학문분야와 연구소가 얼마나 같이 문화발전과 연결되어 있는가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곧 알 수있다.

전자분야 학문은 걸프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발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창안해낸 비디오, 오디오의 각종기기는 세계의 통합·분열과 시각·청각문화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의 의식까지도 바꾸고 만다. 건축분야가 만들어 내는 건물의 기능적 역할과 종합예술적 국면은 도시문화와 인간들의 공간개념까지도 바꾸고 있다. 더구나 연극, 사진예술, 조형예술학과등이 현대문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은 21세기가 아름다움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가 되리라고 예견 한데서도 뚜렷해진다. 실로 대학의 각분야들은 문화창출에 있어서 가공할만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대학문화의 다양성이 대학밖과안의 문화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서도 자유롭고 활발하게 꽃피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각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술·문화행사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행사공간 대부분의 자리가 비워 있는경우가 많고, 땀어린 준비는 축적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듯한 아쉬움이 앞선다. 심지어 우리주변에 그토록 널려져 있는 포스터만 하더라도 때론 조야하고 원색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지극히 극단적이고 구호적 수준에 머무른감이 있다. 대학문화만이 갖는 어떤 학술성과 순수 담백함, 그리고 넘치는 재치와 낭만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나 시각·조형문화등을 전공으로 하는 각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까지도 대학문화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그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얘기 될 수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다. 그들에게 문화나 여유, 낭만같은 것은 어쩌면 입시전쟁의 방해물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같은 억압이 대학에서 기성문화와 가치, 교육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폭발된다. 겸하여 이들은 자본주의 문화의 감각성, 개별성, 퇴폐성 조장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대학은 마치 가진자와 못가진자, 모더니스트와 리얼리스트의 대립장이 된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논리와 흑백 이분법, 그리고 정신과 물질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든지, 우파가 아니면 좌파라든지, 구조아니면 체제라는 단순논리에 따라 이 복잡한 우주와 존재, 세계를 파악하려는 자세에 있다.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가 아닌 타인 그리고 안이 아닌 밖에 있다는 문제파악 자세는, 인간존재의 한계와 모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화는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곳에서 힘차게 성장한다. 정치의 과잉화와 부의 폭력, 의식의 이데올로기화는 문화라는 나무를 고사시키고 말것이다. 대학문화의 각구성원들은 자기의 위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뒷처리식 정책관행이 큰 문제

—두산전자 폐수유출 사건을 보며

며칠전 일주일째 영남지역 전체에 악취를 풍기고 대구시민의 복통을 일으킨 진원지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비밀하수구였다는 사실을 접한 모든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혹시 수도 서울에서, 내가 사는 도시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해도 구토증이 느껴지는 일이다.

이 사건에 어떤 이는 기업인의 비윤리성을 꼬집고, 어떤 이는 정부의 부주의를 탓했을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불만에 호응이라고 하듯 환경청 관리가 경질되고, 두산전자 공장장이 구속되는 등 일련의 사후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스케줄에 꼭 맞추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과 고위책임자의 시정지시가 서둘러 내려지는등, 적당한 제스츄어로 사건의 본질은 가려지고 있다.

한편 두산그룹은 책임을 지고 피해자 전원에게 그 피해액을 보상할 것과 2백억원을 정수처리를 위한 기탁금으로 내놓겠따는 사과성 해명광고를 냈다. 엄청난 뉘우침이다. 거의 뒷일을 예상이라도 했다는듯 거액의 보상금을 내놓고 있다. 그정도의 액수론 아직 폐수시설을 하지않고 방류한 몇년간의 비용과 대조해 이득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병주고 약주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구·영남지역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셈이다. 그러나 생산비절감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 양심과 도덕을 져버린 기업윤리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더욱 한심한 작태는 정부의 대응 행동들이다. 환경문제는 결코 개인의 안락의 문제가 아니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안위적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공장폐수를 방류해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비절감'을 위한 길을 터주는 듯하다가 이제야 그 뒷처리나 하고 있다.

어찌 당국은 이 엄청난 사건을 뒤늦게야 수습한다고 서둘러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환경문제와 공장폐수에 대해 선진국에서 이미 법제화된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규제조항밖에 없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현정권의 뒷청소 실력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번 환경문제만큼은 정부의 편의적인 행정과 소위 가진자들 중심의 법률, 정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는 현재만의 문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와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온갖 부패와 타락상을 해결불가능한 문제로 보더라도 환경문제만큼은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교묘한 극복방법으론 이번 문제를 보지 않아 주길 바란다. 수도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면 가진자들이 좋아하는 수입품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한번 경고한다.

1천여개 핵탄두 존재로 위기 처한 한반도

사론

'91팀스피리트 훈련과 그 배경

정세의 흐름을 급선회 시킬 수 있는 일련의 돌출적이고 파장이 큰 사건들로 인해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로 간과해서는 않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국민들의 시선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반공'사상에 토대를 두었기에 전국민의 반발심리를 자극하지 못한채 '필요 악'이라고 인식되어졌던 팀스피리트 한미군사훈련(이하:팀스피리트)이 '76년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물론 지배권력과 민중의 대립관계를 볼때 향후 정세 속에서 핵심적 사안은 수서비리진상규명과 지자제 선거활용, 임투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향후 더욱 가속화 될 민중들의 분출에 현 정권이 안고 있는 반민중, 반민족적인 본질을 다각도로 폭로해 나감으로써 '반민자당'전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팀스피리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팀스피리트를 이야기함에 있어 우리나라 군대는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미국의 군사유력지인 '군사평론'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군은 미국의 고용군대이며, 또 아시아 진출의 방패에 지나자 않는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한국군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예속일변도의 한미군사협정을 보면 확실해 진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서 규정한 "동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조항과 팀스피리트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유지, 강화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들 조항들을 봤을때 더욱 명확해 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치하에 규정되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써의 호혜평등의 원칙은 완전히 실현·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결국 우리나라 국군조차 순수하게 우리나라만의 군대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실시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6, 77년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증원되는 미예비병력의 신속한 공수작전으로 실시되었고 78년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병력규모가 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이 결정적으로 강화된 계기는 군사대결노선을 전면에 내건 레이건 정권의 등장에 있었다. 이로써 미국은 83년 팀스피리트 훈련때부터는 '동시 다발 보복전쟁'에 입각하여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전쟁대비가 아니라 대소전을 상정한 핵전쟁 연습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종래의 10~15일의 기간을 70~80일로 늘이는 등 확대되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단순한 방어작전이 아니다. 그 규모, 훈련 내용으로 보아 무척 큰 위험성과 전쟁도발성을 내포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상호신뢰협정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준전시 상태로의 북한의 대응태세를 가져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 훈련은 재래식 전쟁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의 핵전쟁을 상정한 종합군사훈련이기에 한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핵전쟁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

◇훈련중인 미포병 부대 군인들이 경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태지역 미국주도로 군사력 재편돼
군사적 신뢰구축 선행해야 군축가능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 현황을 살펴보면 핵지뢰, 핵폭탄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추측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현재 주한미군에는 적어도 6백50~1천여 발의 각종 핵병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보다 1천배가 넘는 위력이다.

'얄타'에서 '몰타'로 대변되는 국제적인 신데땅뜨 분위기에 편승해 마국과 현정권도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현 정권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통한 냉전구조의 해소, 통일환경조성이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정세 속에서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존노선이 이 지역에 파급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미국주도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국의 우위가 관철되는 이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군사력 재편을 통해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조처이다.

이는 국방의 동아시아 담당부찬관보인 더모시 라이트 해군소장의 "민주개혁에 굴복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독재정권이 개혁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 유럽의 동아시아국가의 차별성의 부각을 통해 미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약간 언급된 대로 미국과 현정권은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북한과의 군축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현정권의 의도는 여전히 근본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태평양 90훈련'에 호위함 2대를 파견하는 등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데땅뜨에 따라서 생긴잉여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등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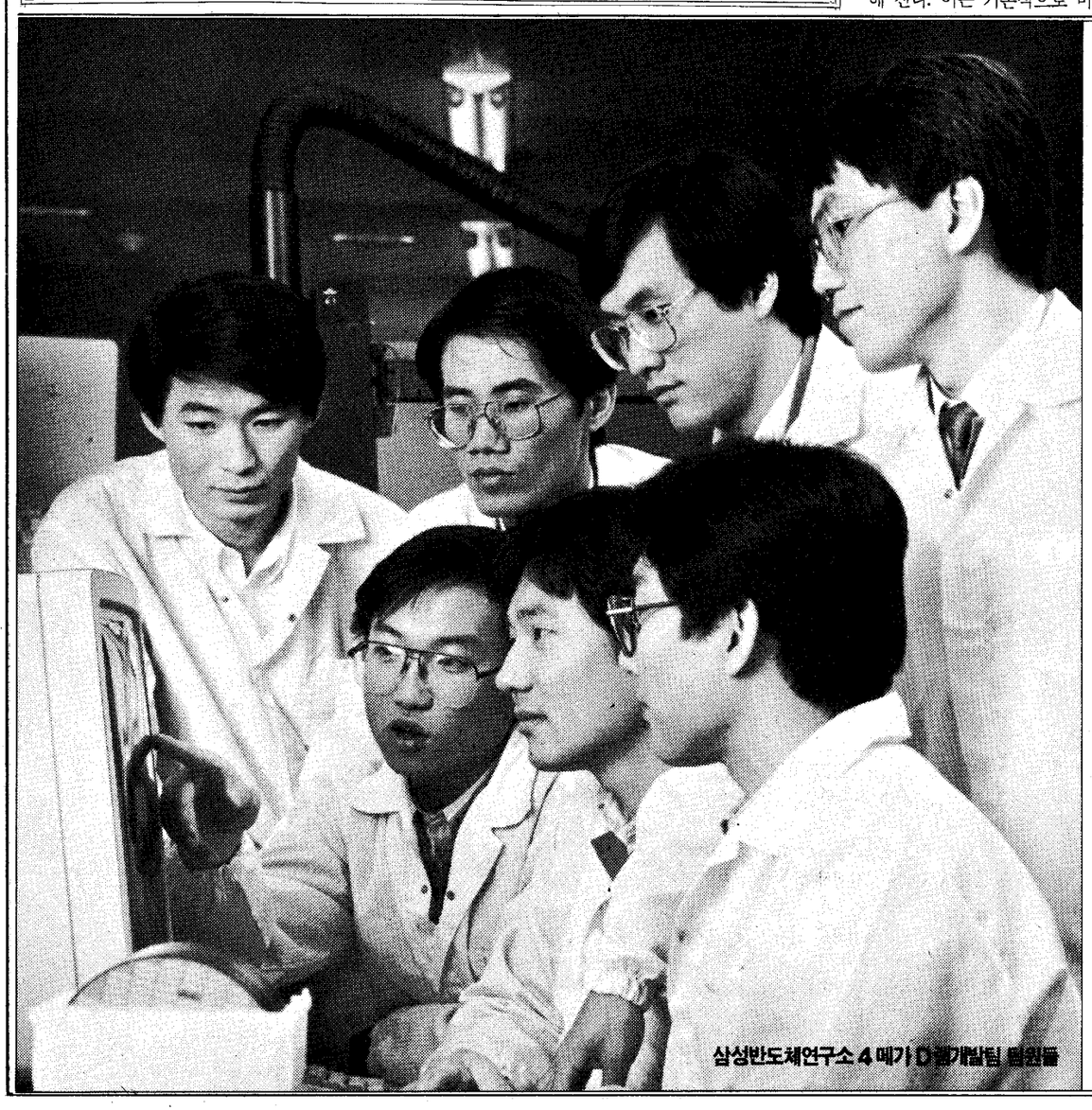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군축협상은 요원할 뿐이다. 그리고 유럽식의 군사적신뢰구축 보다 비군사적·정치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한반도 실정에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유럽에서의 상호신뢰구축이 군사독트린의 '방어적 방어'개념으로의 전환과 소련에 의한 일방적인 군축에 힘입어 군축협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간과한체 비군사적 협상→군사적협상이라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에만 주목한 것이다.

또한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1990~92년 탄약현대화 협정'에 따라 최신 첨단병기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현정권의 소위 '자주국방 정책'이라 일컬어지며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 정권의 조처들은 2개의 한국으로 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

〈송보영 記者〉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삼성반도체연구소 4메가 D램개발팀 멤버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그날의 토요일'이 또 한번 오길 우리는 기대한다.
이제는 추적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해—

또 토요일 오후다.
처음 '7명분의 토요일'을 우연찮게
반납하던 그날의 기대치 이상의 개가에
만족해 해서일까.
한 주일의 땀을 씻으려 총총히 주말의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사우들의 뒷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별 아쉬움을 못느끼고 있었다.
그렇게도 막히고 막히던 4메가 D램의 숙제가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풀려가던 그 토요일 오후의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
친구나 가족, 연인, 자연과의 만남들이
묵계처럼 미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이 정작 우리보다 강한
회사의 지원과 분위기는 몇 억불씩 하는 연구장비를
선뜻 선뜻 준비해 주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4메가 D램을 위해 뛰어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사실이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기술을 주거나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된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연구해야 할 처지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회사의 지원은 우리에게 아낌없다시피 하였다.
64K, 256K D램 개발의 샴페인 단내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4메가 D램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곧 64K, 256K는 시장성을 잃기 시작했다.
4메가 개발에 뛰어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도
시간은 자비를 베풀줄 몰랐다.
초조함과 미안함은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곧 손을 놓게될지도 모를 제조현장 사우들부터
국가에 대한 송구스러움까지 이어지는데는
굳이 그렇게 큰 애국심을 필요로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다시 한 주일의 허망함과 적막함이
연구실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이것봐, 근사치야!"
우리는 누구랄거 없이 무슨 힘인가에 끌리듯
워크스테이션 앞으로 몰려갔다.
그렇게 고대하던 수치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신명이 솟는것 같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한 것 같은 느낌은
나뿐만이 아니었으리라.
그날 7명 어치의 주말 스케줄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4메가 D램에 집적되버렸다고 할까.
그날 이후 우리 7명의 개발팀은 토요일 오후에
스페셜타임을 갖기 시작했다.
복잡한 일상연구와 업무, 부산하게 움직이는
연구소의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토요일 오후를 최대한 활용했다.
4메가 D램은 곧 '메이드인 코리아'와
'메이드인 삼성'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일본이 경악하고 세계가 감탄했던 첫 반응은
곧 세계 2위의
4메가 D램의 수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팀 7명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이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를 믿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현상화시키는
분위기와 투자의 승리이다.
또 토요일 오후이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시에 퇴근하지만,
'그날의 토요일'이 또 한번 오길 우리는 더 기대한다.
이제는 추적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해—

주임연구원 김 명 호

스스로 도전하는 창의정신과 개성을 존중하며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로
2세대 4메가 D램개발의 위업을 달성한 주인들.
위, 좌로부터 김규홍 연구원, 장현순 주임연구원, 배정호 주임연구원, 최운호 선임연구원,
아래, 좌로부터 김태진 연구원, 석용식 주임연구원, 김명호 주임연구원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